

한·베트남 출판교류와 여행에서 얻은 단상



부길만 동원대 광고편집과 교수

2009년 범우출판문화재단(이사장 한승헌) 주최로 실시된 한국·베트남 출판학술교류 및 베트남 여행은 참으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주 행사인 세미나 외에도 베트남의 출판인들을 대표하는 출판협회 회장단 및 정부 출판정책 책임자 등과 대화를 나누고 베트남의 대표적인 출판사를 직접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하노이 시 관광과 호치민 기념관 답사도 베트남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여행에서는 베트남이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1887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줄기찬 투쟁 끝에 몰아냈고, 1964년부터 1975년 사이 세계 최강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이루었지요.

하긴 우리에게도 고구려가 당시 세계 최강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냈고,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해군과 의병들이 수적으로 막강한 일본 군대를 이겨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전근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칼이나 활 또는 소총 정도의 무기일 때는 정신력이 강한 군대, 국민총화가 굳건한 나라가 이길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비행기에서 대형 폭탄을 무제한으로 투하하고, 고엽제를 살포하여 월맹군의 은신처인 숲 전체를 없애버렸던 현대전에서 베트남이 이긴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가능케 했던 전략 전술, 국민 총동원, 호치민의 탁월한 리더십 등을 관광 속에서 알려주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길고 긴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미국과 10년 이상 전쟁을 벌이며 저항했던 현장, 전국민이 동원되어 무기와 식량을 운반했던 낡은 자전거, 최고 전략가로서의 두뇌와 카리스마를 지녔지만 수도승보다 더 청렴하게 살았다고 하는 호치민의 집무실과 생전의 초라한 유품 등을 보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그들이 승리한 이유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술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5천년의 역사를 보존했고,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자랑하지요. 전자는 맞지만, 후자는 역사적으로 볼 때 다소

차이가 납니다. 고구려가 영토를 넓힌 사례를 빼더라도, 외국을 공격한 것은 여러 번 있습니다. 외국 군대와 의 합동 작전도 많았지요.

몽골 군대가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 일본을 공격할 때, 고려 군대도 함께 갔습니다. 두 번 다 태풍 때문에, 공격이 실패하고 말았지만, 당시 일본은 고려·몽골 연합군과의 전쟁 준비로 국력을 크게 소진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마도 정벌이 있습니다. 13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사이에 한국을 침략하던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세 차례 정벌한 적이 있지요. 제1차는 고려말 우왕, 제2차는 조선 태조 때, 그리고 제3차는 가장 유명한데, 세종 때 이종무의 정벌입니다. 이때 대마도주는 항복하고 신하로서 조선과 조공관계를 맺었습니다.

현대에도 한국군은 미국 군대와 함께 이라크에 파병 나가 있지요. 그런데 주축인 미국 군대 연합군의 일원으로 파병 나가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른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 베트남을 돌아다니며 새삼 평화의 중요성이 느껴졌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식민지, 6.25전쟁 모두 우리가 피해자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 의식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함께 공격자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지요. 문제는 우리에게 예나 이제나 그런 공격자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군과 한국 군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공산당을 물리치고자 했을 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전쟁에서 피해자의식도 가해자의식도 사라지게 만들며, 공격의 명분을 제공한 것은 경직된 이데올로기였지요. 이데올로기의 위상은 정말 굉장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베트남에서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경직된 이데올로기와 전쟁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비극적인 사례는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있었던 17세기 조선과 후금과의 갈등일 겁니다. 임진왜란 후 집권한 광해군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기에 균형 외교로 중심을 잘 잡아 중립을 유지하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자학이라는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던 인사들이 '인조반정'을 통하여 정권을 잡고 난 후 친명정책 일변도를 쓴 결과, 결국 치욕의 항복을 하고 청나라의 제후국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직도 분단된 한국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과 베트남은 임진왜란 이후의 한일관계처럼, 현재 좋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내 은행 퇴직 후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한 친구를 하노이에서 반갑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 관심을 끈 또다른 주제는 '아시아'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문화를 자국 중심주의, 또는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다른 한편, 미국이나 유럽쪽의 시각에 경도되어 아시아에 대한 인식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도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 공동체와 같은 하나의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상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공동체의 일원이 안 되고, 세계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아시아인의 의식을 갖고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판 교류에서도 아시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번 세미나와 출판사 방문에서 베트남 출판의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한 베트남 출판계 인사들은 한국 출판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해마다 성장하는 베트남 출판에 대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을 세미나 사회를 보며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베트남과의 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한 이문학 교수의 세미나 발표 내용은 이곳 언론에 여러 군데 소개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아동도서 출판사를 방문했을 때, 독일 어린이 그림책을 베트남어로 번역 출판한 것을 보았는데, 그 독일어 원서의 그림은 우리나라 그림책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출판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 어린이 그림책이 베트남에서 크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

다. 이것이 그림책 분야만은 아닐 겁니다.

베트남은 2004년 베른 조약에 가입하였는데, 현재 출판의 해외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4년 제정된 출판법에는 출판산업을 경제·기술 산업으로 파악하여 육성정책을 마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출판물을 인민의 조직 동원 수단으로 파악했던 과거의 사회주의적 출판관에서 탈피한 것이지요.

또한, 베트남 유명 문학 출판사에서 염상섭의 삼대, 오정희 소설, 한용운 시 등을 출판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삼대 같은 경우, 한국에서 인쇄 비용을 대주었지만 시장에서는 별로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장금 같은 최신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지요. 출판의 경우도 최신 한국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이들의 감수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출판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클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화려하고 사치스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고, 특히 젊은 여성들은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베트남과 출판 교류를 활발히 하여, 우리의 걸모습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서적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출판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출판학자들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